

농어촌공사, '편리하고 안전한 농어촌 만들기' 활동 개시

- 나주경찰서, KT, NH농협은행과 함께 농어촌 지역상생활동 전개 -



<사진설명> 「편리하고 안전한 농어촌 만들기」 단체 기념사진

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'편리하고 안전한 농어촌 만들기'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.

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예방으로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복지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활동은 공사와 나주경찰서, KT전남/전북 광역본부, NH농협은행이 협력하여 전개한다.

올해 공사와 1사1촌 결연을 맺은 나주시 승학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활동은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디지털 기기를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하고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.

또한, 교통사고 예방 및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교육도 함께 병행되었으며, 농기계와 노인 전동차에 부착할 수 있는 태양광 경고등도 제공하여 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.

서선희 총무인사처장은 “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고,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강조하며, “앞으로도 의견을 수렴해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총무인사처 총무부	책임자	부 장	김현석 (061-338-6041)
		담당자	대 리	우종명 (061-338-6047)